

AI 플랫폼 '노원GPT' 성과... 공공행정 AX 속도

區, '온AI' 시범 지자체로 선정... 내달부터 서비스

(행안부)

노원구(구청장 서준오)가 생성형 AI를 행정 전반에 적극 도입하며 공공행정 AX(AX 전향)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능형 업무관리플랫폼 '온AI'의 지방정부 시범서비스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난 3월 전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생성형 AI 플랫폼 '노원GPT'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데 이어 정부의 지능형 업무플랫폼까지 활용 범위를 넓히면서 AI 기반 행정혁신을 본격화한다는 구 상이다.

"온AI"는 행정업무에 생성형 AI를 접목한 지능형 업무관리플랫폼으로, 보안성을 확보한 환경에서 법령·지침 및 각종 행정자료 검색, 데이터 취합·분석, 문서작성 등을 지원한다. 화상회의와 연계

한 화외록 자동 생성·요약 등 반복적인 업무도 줄여 직원들이 전문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지방정부 시범서비스에는 전국 8개 시·도 46개 시·군·구가 선정됐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서는 노원구를 비롯해 도봉구와 서대문구가 참여한다.

구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단순한 업무 효율화를 넘어 행정 전반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한 AI 전환을 적극 추진해 왔다. 새로운

AI 기반 업무시스템의 활용 가능성을 살피고 기존 행정시스템과의 연계, 보안성 등을 검토하며 단계적인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삼성SDS 관계자를 초청해 AI 기반 소통·협업 솔루션 '브리티워크스(Brity Works)' 시연 및 발표회도 열었다. 서준오 구청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AI 기능과 보안성, 기존 업무시스템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살피고 행정업무 적용 방안을 검토했다. 구는 온AI 시범서비스 도입에

앞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행정혁신도 이어오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생성형 AI 플랫폼 '노원GPT'를 도입했다. 9월 현재 전체 현원 1584명 중 1150명이 가입해 전직원의 70% 이상이 활용하고 있다. 노원GPT는 반복 업무와 방대한 자료 처리에 따른 행정적 난비를 줄이는 동시에 데이터의 객관적인 분석 등 행정업무의 전문성 향상에 도 기여하고 있는 편이다.

박소진 기자 zini@sinimilbo.co.kr

라벨같이 근절... 개방화장실 지원...

종로구, 구민 건의 290건 이행 관리

245건 84.5% 실행 가능

종로구(구청장 유한중)가 '현장 구청장실 및 주민공감대화'를 통해 접수한 주민 건의사항 290건의 처리 방향을 마련하고 사업별 이행 관리에 들어갔다.

구는 9월 17일 '주민 건의사항 추진 보고회'를 열어 도로·하수·공원·녹지, 도시계획, 문화관광 등 생활 분야에서 나온 제언의 검토 결과와 실행 방안을 점검했다. 건의사항은 7월15일부터 29일까지 각 지역에서 주민과 만나 수렴한 내용이다.

창신2동의 원산지 표시 위반인 '라벨같이' 근절 요청에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현수막으로 알리고 11월부터 특사경 관원을 받은 단속반을 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종로1·2·3·4가에서 제안한 문화문로 국악 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문로국악, 민간 국악전수·교습소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027년에는 문화문로 활성화와 추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등으로 수용이 어려운 나머지 45건은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대안을 논의한다.

현장 제언은 지역별 사업에도 반영된다. 해와동에서는 서울 문로와 성공관 인근 상가들 철거 부지에 아이 놀음 시설과 휴게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부지는 철거를 마쳤으며 지난 5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공원 조성과 화상실 신축 설계승인을 받았다. 구는 주민이 요청한 화상실 위치 변경을 반영해 변경 승인을 신청한 뒤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다.

창신2동의 원산지 표시 위반인 '라벨같이' 근절 요청에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현수막으로 알리고 11월부터 특사경 관원을 받은 단속반을 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종로1·2·3·4가에서 제안한 문화문로 국악 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문로국악, 민간 국악전수·교습소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027년에는 문화문로 활성화와 추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대우 기자 nice@sinimilbo.co.kr

중구, 글로벌 소프트웨어 출범

외국인 주민에 생활정보 제공

중구가 지역에 거주 외국인과 관광객의 행정 편의 증진을 위해 구 최초로 '글로벌 소프트웨어' 운영에 나섰다. 제1기 소프트웨어는 10개국에서 모인 동대학과 외국인 유학생 26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발대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지역내 대학의 우수한 인적 인력을 구청 서비스에 접목한 관악(官·學) 협력 사례다. 이를 통해 언어 장벽으로 불편을 겪는 외국인 주민에게 정확한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중구와 글로벌 도시 이미지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처음 선보이는 소프트웨어인 만큼, 모집 단계부터 유학생들의 참여 열기는 뜨거웠다. 구는 언어 구사 능력과 영어 외의, 적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6명의 최종 선발했다.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해 프랑스, 러시아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이들은 지역에 외국인 주민이나 관광객을 위한 든든한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된다.

유학생 참여와 직무교육을 마친 소프트웨어는 다국어 맞춤형 소통 협정에 투입된다.

특히 오는 10월 열리는 '정동아름'과 같은 대규모 가을 축제에서 외국인 안내 부스와 통역 요원으로 배치될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또한 ▲구청 소식지 및 홍보물 다국어 번역 ▲지역내 다문화가정 자녀 캠프 멘토링 ▲재난 및 위기 상황 발생 시 비상 통역 등을 수행한다.

구는 소프트웨어의 활용 실적을 1365 자원봉사시스템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우수 활동자를 선정해 구청장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독려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소통은 글로벌 도시 중구의 필수 과제"라며, "글로벌 소프트웨어가 언어 장벽을 허물고 중구 행정의 품격을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yyy@sinimilbo.co.kr



2026 국민공감대상' 살기 좋은 도시 양천구'는 도문 대상을 수상한 뒤 관계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이기재 구청장(오른쪽)의 모습.

'살기 좋은 도시 양천구'... 국민공감대상 2년 연속 '대상' 수상

교육·돌봄·문화·여가 등 주민 삶 균형 발전 호평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도시 환경 개선부터 교육·돌봄, 문화·여가 등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펼쳐온 성과를 인정받아 '2026 국민공감대상' 살기 좋은 도시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국민공감대상'은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가 후원하는 행사로, 국민과의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차별화된 정책과 서비스를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한다. 구는 오랜 지역 현안을 하나씩

풀어내는 동시에, 주거·교통 기반과 보육·교육·문화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왔다. 먼저 오랜 숙원을 풀어나 도시 정비는 양천의 미래지도를 빠르게 바꾸고 있다. 목동아파트 14개 단지는 모두 정비구역 지정에 마치고 조립 설립, 통합심의 등 본격 실행 단계에 들어섰으며, 모야타문과 민간·공공개발 등을 포함

해 구 전체 66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아이와 가족이 함께 살기 좋은 교육·돌봄 환경도 속속해졌다. 전국 교육·돌봄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Y교육바탕'을 비롯해 양천교육지원센터와 권역별 미래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학습·진학·진로부터 인공지능·글로벌 역량까지 학교 밖 교육의 폭을 넓혔다.

박소진 기자 zini@sinimilbo.co.kr

금천구, 서울시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우수 자치구'에 뽑혀

위험 요소 발굴·개선 높은 점수

금천구(구청장 최기찬)는 '2026년 집중안전점검' 서울시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올해 집중안전점검 기간(4월20일~6월19일)에 시설·전기·소방·안전·가스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유관기관과 협업체 지역

내 재난위험시설 77곳을 점검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시설별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현장 여건에 맞는 점검장비를 사용했다.

구에 따르면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와 보수·보강 등 필요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민간 시설에서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

해서도 보수·보강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이행을 유도하는 등 점검 이후의 사후관리에도 힘썼다.

또한 구민의 안전점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점검신청제 및 안전점검 홍보보급제인을 실시하고 자율안전점검조를 배부하는 등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스스로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도 함께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은 서울시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이어갔다. 서울시는 올해 집중안전점검에 대해 ▲점검대상 선정의 적절성 ▲점검방법 및 결과의 적정성 ▲후속조치 및 이력관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주민 참여 등 전반적인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구는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영준 기자 yyy@sinimilbo.co.kr

간추린 뉴스

광진구, 27일까지 온라인정책방 정책제안 공모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오는 27일까지 '온라인정책방 정책제안 특별공모'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공모는 주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진구청 발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2개 분야다. 첫 번째는 민선 9기 구청 비전인 '살기 편한 행복광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제안으로, 좋은 일자리와 살기 편한 집, 휴식과 문화가 있는 광진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주민 생활과 행정서비스의 불편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정책제안이다.

참여 희망자는 두 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광진구청 누리집의 '온라인정책방'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인 또는 1팀당 1건만 제출할 수 있으며, 공모 참여자 가운데 10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한다. 접수된 제언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1·2차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 10건을 선정한다.

이영준 기자 yyy@sinimilbo.co.kr

송파구, 신천리근공원 정비... 내달부터 24시간 개방

송파구(구청장 서갑석)가 오는 30일까지 서울경찰청의 어린이 교통구역으로 사용하고 폐쇄했던 서울 송파구 신천리근공원의 개방비 공사를 완료하고 10월부터 주·야간 24시간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신천리근공원은 자연 속에서 책을 읽는 아이도서관과 데크로드로 연결된 숲속쉼터가 조성됐다. 인계분수와 이계정원,

365m 길이의 건강 순환길을 비롯해 새로 단장한 어린이놀이터와 다목적 운동 공간, 화장실도 갖췄다.

야간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조명을 교체하고 폐쇄회로(CC)TV도 확충했다. 위험한 노후 시설은 철거했지만 기존 교통공간에 있던 옛 시청 건물과 미니언저 남산타워 등 일부 시설은 보존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nimilbo.co.kr

마포구, 내달 16일까지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 접수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맛과 위생, 친절을 두루 갖춘 식당과 방앗간이 많고 찾을 수 있는 음식점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2026년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을 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모범음식점"은 음식의 맛과 위생관리, 서비스 수준을 비롯해 음식의 남용과 위생용품 사용은 줄이는 '좋은식단' 실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28개 업소가 신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마포구에는 현산·종식·일식 등 165개 모범음식점이 운영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개업 후 6개월이 지난 일반음식점이다. 영업점지 이상의 행정처분으로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류는 주로 취급하는 업소와 빵집 등 원료유를 취급 업소,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업소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영업자는 오는 10월16일까지 구청 또는 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마포구청 공무원이나 (사)한국식품진흥재단 마포구지회에 제출하면 된다.

문민호 기자 mmh@sinimilbo.co.kr



명절 맞이 전통시장 방문

진교훈 감사시장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최근 전통시장을 찾아 물가 동향을 살피고 상인들을 격려하는 등 민생 행보를 나눴다. 시장은 진 구청장으로 취임 이후 사회복합시장을 찾아 상인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중랑구, 내달 10·24일 '반려견 놀이터' 안전 수칙 교육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과 안전한 반려견 놀이터 이용을 위해 '반려견 놀이터 친구 만들기' 교육 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반려견과 보호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알아야 할 기본 안전 수칙과 반려견의 행동 신호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구에 따르면 교육은 10월10·24일 오후 1시30분~3시 용마 폭포공원 반려가족센터에서 총 2차례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동물등록을 완료한 중랑구민이며, 회화책 15명씩 총 30명을 모집한다. 반려견을 반드시 동반해야 하며, 모집인원 초과 시에는 지역내 저소득층과 65세 이상 1인 가구를 우선 선발한다. 교육은 ▲안전한 놀이터 이용을 위한 보호자의 행동 및 예절 ▲놀이에서 반려견 간 안전한 인사 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영준 기자 yyy@sinimilbo.co.kr

강북구, 자살·은둔·고독사 예방 TF 회의

강북구(구청장 정창수)는 최근 인수동 자치회관에서 '자살·은둔·고독사 예방 TF' 제2차 회의를 열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살·은둔·고독사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TF 구성위원과 지역내 유관기관 관계자 등 35명이 참석했다.

교육에서는 스스로를 대표 상담원 박사기 책 '혼자 죽는 사회'를 보는 자살·고립을 주제로 강연했다.

책에서는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의 관계를 살펴보고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 단절, 돌봄 공백 등이 고립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했다.

이외 고립 위험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의료·복지·주거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민호 기자 mmh@sinimilbo.co.kr